

#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관’ 비판\*

- ‘병사의 노래’ 번역의도 분석을 통해 -

박 상 현\*\*

koreaswiss@khcu.ac.kr

## 〈 目 次 〉

- |                            |                           |
|----------------------------|---------------------------|
| 1. 서론                      | 3.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관’ 비판 |
| 2.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 번역의도 | 4. 결론                     |

Key word : 서두수(Suh Doo soo), 만엽집(Mannyousyu), 전통(Tradition), 번역(Translation), 병사의 노래(Sakimorinouta)

## 1. 서론

2012년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 『만엽집(万葉集)』의 완역은 영어, 프랑스어, 체코어, 중국어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sup>1)</sup> 아직 한국어로 된 『만엽집』 완역이 없다는 말이다. 『만엽집』의 한국어 완역이 지금까지 달성되지 못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에 대해 『만엽집』 연구의 대가 중의 한 사람인 나카니시 스스무(中西進)는 이연숙의 『한국어역 만엽집』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NRF-2011-413-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万葉集)

1) 나카니시 스스무(2012) 『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 『한국어역 만엽집』간행을 축하하며』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p.1

을 추천하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작품의 방대함이다. 4500여 수를 번역하는 것은 긴 세월이 필요하다. 둘째, 『만엽집』은 시(詩)이기 때문이다. 산문과 달라서 독특한 언어 사용법이 있으며 내용이 생략되거나 압축된 부분도 많다. 셋째, 고대어이므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다. 더구나 천년 이상 필사(筆寫)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오자도 적지 않다. 넷째, 『만엽집』의 작품은 당시의 관습, 사회, 민속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sup>2)</sup>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어로 『만엽집』을 번역하고자 했던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 ‘조선어·조선문학’ 강좌 출신인 김사엽(1912년-1992년)은 『만엽집』완역을 목표로 번역 작업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업 도중에 작고하는 바람에 『만엽집』20권 가운데 권1~권16까지만 『한역 만엽집-고대일본가집(韓訳万葉集-古代日本歌集)』(成甲書房, 제1권 1984년, 제2권 1985년, 제3권 1987년, 제4권 1991년<sup>3)</sup>)으로 일본에서 출간되었다.<sup>4)</sup> 그리고 그의 사후 『한역 만엽집』의 미완성 유고가 『김사엽 전집』 제12번(박이정, 2004년)으로 나왔다. 여기에는 『만엽집』 권17~권20에 실린 작품 627수(首) 가운데 158수가 발췌·번역되어 있다. 김사엽의 『만엽집』 번역 과정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최근에는 동의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직 중인 이연숙이 『만엽집』완역을 목표로 지금 한창 번역중이다. 그 첫 번째 결실이 『한국어역 만엽집』으로 박이정에서 출판되었다.<sup>5)</sup> 여기에는 20권으로 구성된 『만엽집』 가운데 우선 권4까지가 번역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만엽집』을 완역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발췌·번역으로 『만엽집』

2) 나카니시 스스무(2012) 『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 『한국어역 만엽집』간행을 축하하며』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p.2

3) 『한역 만엽집』은 일본국제교류기금 번역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다.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pp. 208-258

4) 단, 판매는 일본과 한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일본에서는 성갑서방(成甲書房)에서, 한국에서는 교보문고에서 각각 시판됐다.

5) 이연숙(2012)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2-만엽집 권3』 박이정

\_\_\_\_\_ (2012) 『한국어역 만엽집3-만엽집 권4』 박이정

을 소개하는 시도도 있었다. 예컨대 구정호(2005)의 『만요슈-고대 일본을 읽는 백과사전』(살림), 박상현(2006)의 『천년의 연가-만엽집』(제이앤씨)과 그(2008)의 『일본인의 사랑의 문화사-만엽집』(제이앤씨, 2008년), 그리고 고용환·강용자(2009)의 『만엽집』(지만지)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제강점기에 이미 『만엽집』을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한 사람이 있었다. 서두수와 김억이 그들이다. 경성제대에서 최초로 ‘국어학·국문학’(=일어일문학) 강좌에 들어간 서두수(1907년-1994년)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발표했다. 이것은 『만엽집』의 작품 가운데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거의 같은 시기인 1943년에 번역가이자 시인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김억은 『만엽집초역(万葉集鈔譯)』과 『선역애국백인일수(鮮譯愛國百人一首)』를 통해 『만엽집』을 당시의 식민지 조선인에게 소개했다.<sup>6)</sup>

본고에서는 우리역사상 『만엽집』을 최초로 번역했던 서두수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번역했던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에 나타난 그의 번역의도를 철저히 검토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의 ‘병사의 노래관’이 함의하고 있는 문제점, 즉 제국 일본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내재화하고 있었다는 점과 태평양전쟁 당시의 현재를 고대일본에 투영하여 과거를 재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 2.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 번역의도

1907년 경상북도에서 출생한 서두수는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25년에 예과(豫科) 2회 입학생으로 경성제대 문과에 입학했다. 예과 졸업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해주길 바란다.

박상현(2009) 『식민주의와 번역-김억의『만엽집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2009) 『김억의『선역 애국백인일수』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후 본과(本科)에 들어간 그는 지금의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국어학·국문학’ 강좌로 진학해서 당대의 고전학, 그 중에서도 『만엽집』의 권위자인 다카기 이치노스케(高木市之助) 문하로 들어갔고, 여기서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국문학’(=일본문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1930년 봄에 경성제대를 졸업한 서두수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촉탁 그리고 전남포항공학교의 교유(敎諭)를 지내다가 1937년경에 이화여자전문학교(이하, 이화여전) 문과로 전직했다. 광복 후 그는 지금의 연세대학교인 연희대학교에서 국문학,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다가 6·25(한국전쟁) 발발 직전인 1949년 미국의 컬럼비아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6·25로 귀국하지 못하게 된 그는 거기서 교육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착하게 된다. 서두수는 하버드대학교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한국(문)학을 가르치다가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정년까지 한국(문)학을 강의했고, 1994년 10월에 사망하게 된다.<sup>7)</sup>

서두수는 미국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로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개척자’로 기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와이대학교에 『Doo Soo Suh Collection』이 있다는 것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정부가 미국 내에 한국학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학 관련 학자를 양성했다는 공로로 그에게 1985년에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개척자로서의 서두수라는 기억은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비교적 최근 기사인 2012년 7월 20일자 『조선비즈(chosunbiz)』가 전하는 『“해임위기” 서남표 총장<sup>8)</sup>, 2대째 기구한 대물림』과 같은 기사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교내 안팎으로부터 퇴임 압박을 받고 있는 서남표 총장은 2006년 7월 첫 임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KAIST개혁은 물론 한국 대학 교육의 전면적 혁신을 불리울 인물로 조명을 받았다. (……) **서 총장의 아버지는 재미 한국학자인 고(故) 서두수**

7) 일제강점기하의 서두수와 광복 후의 서두수의 자세한 활동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박상현(2013)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자』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8) 서남표 총장의 부친이 다름 아닌 서두수이다.

**워싱턴대 교수다.** (……) 1949년 미국 컬럼비아대로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하버드대와 워싱턴대에서 한국학을 가르쳤다.** 한때 시애틀 한인회장을 맡기도 한 그는 워싱턴대에서 교수로 일하던 중 성균관대 측의 초청으로 1962년 12월 총장에 취임했다. **서두수 교수는 (……) 해방 후 미국으로 건너가 한국학을 가르쳐 일찌감치 국내에 알려졌다.** 총장에 취임하기 전에도 국내 언론에 ‘미국의 한국인들’에 대한 그의 강연이 소개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 1980년대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국내에 들어와 자료 수집을 하거나 국내 강연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sup>9)</sup>

위 인용문은 현 카이스트 총장인 서남표의 퇴임 위기를 다룬 것인데, 여기에 그의 아버지인 서두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요컨대 서두수는 국내에 일찌감치 알려진 ‘재미 한국학자’라는 것이다.<sup>10)</sup>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점은 한국사회에서는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개척자로서의 서두수’라는 면모만 두드러질 뿐,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라는 얼굴은 거의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한국의 일문학계가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일본문학연구의 기원을 1961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설치된 일본어과와 1962년 현 서경대학교의 전신인 국제대학에 개설된 일어일문학과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sup>11)</sup> 곧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라는 존재를 잘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우리사회에서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에 처음으로 주목한 사람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임종국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친일문학론』에서 서두수를 명시적으로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일제강점기하에 일본문학을 조선어로 번역하는 행위에 대해 친일문학의 중범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서두수가 『만엽집』가운데서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한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이 들어간다).<sup>12)</sup>

9) 『조선비즈(chosunbiz)』 2012년 7월 20일자

10)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개척자로서의 서두수라는 이미지가 정착하게 된 것은 1960년대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13)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자』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1) 박상현(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만엽집』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7-132

하지만 한동안 서두수는 연구자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었는데, 그를 다시 세상에 불러낸 것은 김영심이다. 일본문학연구자인 그는 서두수가 1940년에 발표한 「일본문학의 특질」(『인문평론』)에서 『겐지이야기(源氏物語)』를 언급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서두수를 경성제대의 이념대로 키워진 친일파 수재로 평가한다.<sup>13)</sup>

결국 임종국과 김영심은 서두수의 학문활동, 즉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역과 일본문학에 대한 언급을 각각 친일 행위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한국문학연구자들도 서두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가 서은주와 박광현이다. 이들은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즉 ‘조선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와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라는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서은주는 서두수의 조선문학에 관한 관심은 단순한 ‘취미’나 ‘교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가 일본의 제국문학사 속에서 방언으로 이루어진 조선문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일본문학과 대등한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조선문학을 대상화했다고 지적한다.<sup>14)</sup> 또한 박광현은 서두수를 일본문학과 조선문학 사이에서 자신의 학문적 정체성을 모색했던 인물로 파악한다.<sup>15)</sup>

이와 같은 서은주와 박광현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은 좀더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즉 서두수의 학문활동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시기적으로 달랐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시기적으로 달라야 한다. 즉 제1기인 1930년~1939년까지가 조선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sup>16)</sup>하면서도 주로 조선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였던 시기였다면, 제2기인 1940년~1945

12) 임종국(2005)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 pp.445-446

13) 김영심(2002)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40

14) 서은주(2008) 「일본문학의 언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제22집 상허학회 p.268

15)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pp.367-368

16) 서두수는 1939년에 일본문학에 관한 강연과 글을 발표했다. 즉 동아일보 1939년 2월 3일자에 따르면 서두수는 「일본문학에 나타난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일본문학에 대해 강연했고, 또한 그해 11월에는 「표현의 일본적 특성 : 명저 해설」(『국민문학』)을 발표했다.

년까지는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다. 그리고 광복 후인 제3기 1945년~1949년까지는 한국문학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고, 도미 후인 제4기 1950년 이후부터 작고하기까지는 미국에서의 한국(문)학개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다.

이처럼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이고 다중적이었다. 그리고 서두수의 이런 변화는 자신에게 요구되었던 그 시대 시대의 요청에 철저히 응답한 결과였다.<sup>17)</sup>

그럼 지금부터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서두수’에 초점을 맞춰보자. 그는 이화여전에서 일본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세상에 내놓는다.<sup>18)</sup>

『표현의 일본적 특성 : 명저 해설』(『국민문학』1939), 『일본문학의 특질』(『인문평론』1940), 『문학의 일본심』(『삼천리』1941), 『일본문학과 고전』(『매일신보』1942.3.28~4.3), 『문학의 일본심』(『조광』1942), 『일본의 생활미』(『반도의 빛<半島の光>』1942), 『명치문학이 탄생할 무렵(明治文學が生れる頃)』(『춘추』1942), 『명치소설(明治の小説)』(『춘추』1942), 『속 명치소설(明治の小説<つづき>)』(『춘추』1942), 『명치시가(明治の詩歌)』(『춘추』1942), 『병사의 마음(防人のこころ)』(『국민문학』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매일신보』1942.11.2~12), 『명치 극문학(明治の劇文学)』(『춘추』1942),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국민문학』1943)

여기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본고에서 주로 검토할 대상인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이다. 이것은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조선어로 옮긴 것인데, 그 번역의도에 대해 서두수는 『매일신보』11월 2일자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17)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조하게 바란다.

박상현(2013)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강좌 출신자』 『일본학연구』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18) 서두수가 남긴 일본문학에 관한 자세한 부연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12) 『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 서두수 연구-문헌학적 고찰』 『일본문화연구』 제4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_\_\_\_\_ (2012) 『식민지 조선에서의 『만엽집』 수용 양상-서두수와 김억의 『만엽집』 번역을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33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以下拙譯이 數로서는 그全部임으로 感意味가 그곳에서 얼마간이라도 바로 옮겨 있다면 二作品自體가 說明해줄것가태 絮說을삼가는터이다마는 어찌튼 이에서 벌 서우리는 『眞正한』-짜정 眞正한『日本心』의血脈을 豫想할수잇슴을말하려한다.<sup>19)</sup>

따라서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번역한 의도는 ‘진정한 일본심’을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이 ‘진정한 일본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그 다음 날에 발표된 11월 3일자에 잘 나와 있다. 여기에서 서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數로짜진다면 말할수업시 엄청난比例로 父母그중에도 어머니 十七首쯤은 안헤 와離別하기서러운 表懷를 『아모런숨김업시』노래하고있다 나는 이 『아모런숨김업시』사람을산 그들精神속에 眞正한忠君과 愛國의精神이오히려 保藏되어잇슴을 요 지음 『防人精神』을 말하는이들에게 보여서는아니될것일까<sup>20)</sup>

이와 같이 서두수는 꾸밈없이 자신의 심정을 읊은 ‘병사의 노래’에서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을 읽어냈다. 따라서 ‘진정한 일본심’이란 병사의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서술이 아래와 같이 11월 3일자에서 반복된다.

이구김살업는마음(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마음, 인용자) 이 이 亦記念한 語感으로 힘박담은 『大君』『わが大君』니하는聖上을 우르러 一死忠君을能히한다 純情이殉情을이룬다 正直한嗚咽이 偉大한慟哭을이룬다 그리하여이 에는 오직더러 퍼지지안는 吽의脈動이同一하여서이다 이同調的인 吽의論理 이것이 바야흐로 防人精神이며 眞正한日本心이다.<sup>21)</sup>

결국 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吽의 맥동’·‘吽의

19) 『매일신보』 1942년 11월 2일자

20) 『매일신보』 1942년 11월 3일자

21) 『매일신보』 1942년 11월 3일자

논리'가 바로 '병사의 정신(防人精神)'이고 '진정한 일본심(日本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서두수는 이와 같은 '진정한 일본심'을 당시의 '국어(國語)'인 일본어(日本語)를 모르는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고 싶었기에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했던 것이다.<sup>22)</sup>

### 3.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防人歌)관' 비판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서두수는 천황과 일본을 위해 죽음을 돌보지 않는 병사의 '피의 맥동'·'피의 논리'가 바로 '병사의 정신' 곧 '진정한 일본심'이라고 말하고, '진정한 일본심'을 일본어를 모르는 당시의 식민지 조선의 신민에게 '이식'하고 싶었기 때문에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서두수가 '병사의 노래'를 보는 시각 곧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이다. 사실 '병사의 노래'에는 서두수가 말했듯이 천황을 위해 충성을 다짐하는 듯한 노래(歌)가 없지는 않다. 예컨대 권20·4328번 와카(和歌)인 "우리聖上 그말삼惶慄코야 기속지나며 바다별판건너가 오 **어버이남겨두고**"<sup>23)</sup>는 태평양전쟁 발발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시적<sup>24)</sup>으로 천황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노래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노래에서조차도 곧바로 "어버이남겨두고"와 같이 부모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병사의

22) '병사의 노래'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서두수가 어떤 고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23) 인용은 『매일신보』에 게재된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에 의한. 이하 같음.

24)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시나다 요시카즈의 설명이다. 그는 『아즈마 노래·병사의 노래론(東歌·防人歌論)』에서 1933년에 발간된 제4기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국어독본 심상과용(小学國語讀本 尋常科用)』의 6학년에 '만엽집'의 단원이 설정되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용 국어교과서에 처음으로 '만엽집'이 등장한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단원의 서두에 권20·4373번 와카(주 25 참조)가 인용된 뒤, 다음과 같은 해설이 달려 있었다고 언급한다. **"정말이지 국민의 본분, 군인으로서의 훌륭한 각오를 잘 나타낸 노래이다. 이러한 병사와 그 가족들의 노래가 『만엽집』에 많이 보인다."**

品田悦一(2005) 『東歌·防人歌論』 『セミナー万葉の歌人と作品』 第11卷 和泉書院 pp.20-21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바로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sup>25)</sup>

이미 미사키 히사시(身崎壽)가『병사의 노래 시론(防人歌試論)』에서 잘 지적하고 있고, 또한 현재 일본학계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듯이 방금 살펴본 것과 같은 와카는 총 84수의 ‘병사의 노래’ 가운데서 8수라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그 대부분의 노래는 가족과의 헤어짐을 가슴 아파하는 이별의 노래다.<sup>2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수는 모든 ‘병사의 노래’에서 진정한 충군과 애국의 정신을 발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노래에 서두수가 직접 붙인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20 · 4373

今日よりはかへりみなくて大君の しこの御楯と出で立つ吾は  
이贱身 높으신님 방패로 나서노라 이저것 오늘부터야 돌볼줄이 잇으라

【後記】

『出で立つ吾は』라고 내가떠나간다고 고향친다 미듬직한사나히여 겨우열사람軍卒의長인 今奉部與曾布도 이리케感動하다 임금님의방패-그도御로修飾한방패라고 씌내는忠誠이 與曾布진있다 그리고이것은 防人全體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혹한精神이다<sup>27)</sup>

결국 서두수는 거의 모든 ‘병사의 노래’가 가족과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병사의 노래’에서 충군과 애국의 ‘진정한 일본심’을 읽어 내기 위해 그런 노래들을 외면했다. 즉 그의 ‘병사의 노래관’에는 이처럼 ‘선택

25) 참고로 권20 · 4328번과 같은 노래는 다음과 같이 몇 수가 더 있을 뿐이다. 이들 와카는 모두 권20에 수록되어 있다.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잠드니 지어밑씨나고서(4321)  
 璽上の부르심 황송티밧자와 짐을나서니 부여잡고서뤄하며 말하던그이어여(4358)  
 오늘이제론 내사도라볼것가 우리璽上の 센방패내가되여 길을내씨나로니(4373)  
 우리璽上님 크신말삼나리다 이바어머니 神主독모서듯듯 모셔두고왔노니(4393)  
 우리璽上 크신말삼어려웨라 활을잡은양 긴이밤을새울것가 기나기단이밤을(4394)  
 璽上께서니 크신말삼어려워 구름자자진 이시저山다지나 嶺을넘어예왔소(4403)  
 璽上께서니 크신말삼저어라 애롭고귀연 내님손씨러저 섬과섬지나머가오(4414)

26) 身崎壽(1973) 『防人歌試論』 『万葉』第28号 万葉学会 p.22

27) 『매일신보』 1942년 11월 7일자

과 배제'라는 여과 과정이 들어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은 지극히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서두수의 이런 '병사의 노래관'이 '내지(內地)'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는 점이다.<sup>28)</sup> 이런 사실 관계를 일제강점기 당시 '내지'에서 출판된 『만엽집』주석서에서 확인해보자.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주로 그 검토 대상을 아래 <표>와 같이 권20·4328번 작품과 권20·4373번 작품으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서두수가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리노우다)-치졸한 이식』에서 이들 와카에 대해 '原歌는익히알려진노래이다'·'原歌는 널리알리워져잇는노래다'와 같이, 당시 '내지'에 널리 유포되었던 이들 노래를 특히 강조하면서 '병사의 노래'를 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lt;표&gt;

	서두수의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	'내지'의 『만엽집』 주석서
권20 · 4328	原歌는익히알려진노래이다 『父母を置きて』와 『大君の 命かしこみ』는서로어긋나는양보일지나 어긋나는이感情이야 짜정眞實이다 그리고이眞實이그들을크게힘있게 하고있다 <b>속임업는眞情이 속임업는忠誠을 가져오는 防人の○<sup>29)</sup>姿를눈앞에그리라</b>	<p>'천황의 명대로'라는 말은 상대 문화에 많이 보이고 병사의 노래에서만도 다섯 군데 보인다. 소집에 임해 지금의 군인칙유(軍人勅諭-)와 같이 부령사(部領使 병사를 직접 인솔하는 임무를 맡음. 인용자) 정도에게서 병사에 언도된 것이 아닐까. 여하튼 그것은 <b>이 사상이 당시의 일반 무인(武人)의 통념이었던 것은 명백하다</b><sup>30)</sup></p> <p>부모를 버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b>천황(君)을 위해 헌신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b><sup>31)</sup></p>

28) 당시 식민지 조전은 '외지(外地)'로, 본토는 '내지'로 불렀는데, 서두수가 '내지'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데서도 잘 드러난다. 즉 그는 1941년에 발표한 수필 『오전 3시의 잠꼬대(午前三時のたは言)』에서 일본의 좋은 점은 '내지' 문화에 있고, '내지' 문화의 좋은 점은 고전에 있다고 말한다.

서두수(1941) 『오전 3시의 잠꼬대(午前三時のたは言)』 『국민문학』 인문사 p.120

29) 판독을 하지 못한 것을 '○'로 표시했다.

30) 豊田八十代(1935) 『万葉集總釋』 樂浪書院 p.39

31) 鴻巣盛廣(1935) 『萬葉集全釋』 広文堂書店 p.39

32) 豊田八十代(1935) 『万葉集總釋』 樂浪書院 p.79

권20 · 4373	<p>原歌는 널리알리워져잇는노래다 <b>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몸업시 씩々하게써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崇嚴한國民性이다</b> 『出で立つ吾は』라고 내가써나간다고 고함친다 미듬직한사나히여 겨우열사람軍卒의長인 今奉部與曾布도 이리케感動하다 임금님의방패-그도御로 修飾한방패라고 씹내는忠誠이 與曾布겐잇다 그리고이것은 <b>防人全體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극한精神이다</b> 嚴肅한 崇敬에서 이精神은 비져진것이다</p>	<p>군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잇고 오로지 변방 수호의 중대한 임무를 다 하려 하는 <b>충성스럽고 용맹한 국민성(國民性)이 나타난 귀중한 노래</b>로써 “출정하는 것이다, 나는”의 한 구에 <b>충성스럽고 용맹한 아즈마 지방의 남자의 면모가 약동하고 있다</b>. 작자는 화장(火長-병사 10인이 모인 그룹을 ‘화’라고, 그 우두머리를 ‘화장’이라 불렀음. 인용자)이라는 미천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지만 이와 같은 훌륭한 작품이 있는 것은 실로 우리나라의 자랑이다<sup>32)</sup></p>
------------------	---	--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권20·4328번 노래와 권20·4373번 노래에 대한 서두수의 해설과 그의 해설보다 먼저 발간된 ‘내지’의 『만엽집』주석서의 해설은 거의 같다. 즉 권20·4328번 노래에 대해 서두수의 『防人歌(사키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에는 “속임업는忠誠을가져오는 防人の○姿를눈압에그리랴”라고 나와 있다. 한편 같은 와카에 대해 ‘내지’의 『만엽집』주석서인 『만엽집총석(万葉集總釋)』에는 “이 사상(‘천황의 명대료’를 가리킴. 인용자)이 당시의 일반 무인의 통념이었던 것은 명백하다”, 『만엽집전석(萬葉集全釋)』에는 “천황을 위해 헌신하는 심경을 노래하고 있다”로 각각 해설되어 있다. 또한 권20·4373번 와카에 대해 서두수의 『防人歌(사키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에는 “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몸업시 씩々하게써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崇嚴한國民性이다”·“防人全體가 가진 絶對隨順의 가극한精神이다”라고 해설되어 있고, 한편 『만엽집총석』에는 “군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잇고 오로지 변방 수호의 중대한 임무를 다하려 하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국민성이 나타난 귀중한 노래”·“충성스럽고 용맹한 아즈마 지방의 남자의 면모가 약동하고 있다”로 설명되어 있다.

한편 ‘선택과 배제’의 여과 과정을 거친 이와 같은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 곧 ‘병사의 노래’는 충군과 애국의 노래라는 시각에는 ‘태평양전쟁기 당시의 일본’을 ‘고대일본’에 그대로 투영하여 고대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다.<sup>33)</sup> 예를 들면 방금 인용한 권20·4373의 ‘후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33) 이런 욕망은 요즘 중국이 벌이고 있는 동북공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최근 만리장성의 길이를 동북지방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이것

기술에 주목해보자.

【後記】

임금을爲해 나라를爲해 모든돌몸업시 씩々하게써나는 男兒意氣 이意氣야말로 尊重해마지안는 한○ 崇嚴한國民性이다<sup>34)</sup>

‘국민성’이란 근대국민국가가 성립되고 나서야 쓸 수 있는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개념을 그대로 고대의 『만엽집』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두수의 이런 ‘육망’도 또한 ‘선택과 배제’라는 여과 과정에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내지’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 관련 양상을 ‘내지’에서 출간된 『만엽집』주석서의 검토를 통해 살펴보자. 예컨대 좀 전에 인용했던 권20·4328에 대해 도요다 야소요(豊田八十代)가 『만엽집총석(万葉集總釋)』에서

‘천황의 명대로’라는 말은 상대 문학에 많이 보이고 병사의 노래에서만도 다섯 군데 보인다. 소집에 임해 지금의 군인칙유(軍人勅諭)<sup>35)</sup>와 같이 부령사(部領使·병사를 직접 인솔하는 임무를 맡음. 인용자) 정도에게서 병사에 인도된 것이 아닐까. 여하튼 그것은 이 사상이 당시의 일반 무인(武人)의 통념이었던 것은 명백하다<sup>36)</sup>

로 말한대든지, 권20·4373에 대해서도 그가

군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완전히 잊고 오로지 변방 수호의 중대한 임무를 다하려 하는 충성스럽고 용맹한 국민성(國民性)이 나타난 귀중한 노래<sup>37)</sup>

라고 지적한데서 확인할 수 있다.

---

은 결국 지금의 중국영토의 경계를 고대에 그대로 투영하여 고대를 제멋대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4) 『매일신보』1942년 11월 7일자

35) ‘군인칙유’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인 1882년에 메이지천황(明治天皇)이 육해군인에게 내린 칙유다.

36) 豊田八十代(1935) 『万葉集總釋』樂浪書院 p.39

37) 豊田八十代(1935) 『万葉集總釋』樂浪書院 p.79

결국 서두수는 태평양전쟁기에 일본군에서 요구되었던 충군과 애국의 정신을 『만엽집』의 노래, 그 중에서도 특히 ‘병사의 노래’에서 찾아내어, ‘병사의 노래’가 마치 충군과 애국의 정신으로만 충만한 노래인양 선전했다. 또한 이런 당대의 시대정신이 마치 유구한 일본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일본민족의 민족적 정체성(identity)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은 ‘내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수는 ‘제국 일본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내재화’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sup>38)</sup>

#### 4. 결론

서두수는 일제강점기에 경성제대에 설치된 ‘국어학·국문학’(=일어학·일문학)강좌에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들어가 근대 아카데미즘으로서의 ‘국문학’(=일본문학)을 수학했다. 그런 그는 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11월 2일부터 12일까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만엽집』의 노래 가운데 ‘병사의 노래’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하여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이라는 제목 하에 연재했다. 그의 번역의도는 명확했다. 즉 ‘병사의 노래’에서 ‘진정한 일본심’과 ‘숭고한 국민성’을 읽어내어 그것이 마치 일본역사상의 민족적 정체성인양 선전하고 싶었다.<sup>39)</sup> 곧 제국 일본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38) 이와 같은 내재화는 일제강점기하의 그의 사회 활동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서두수는 일제강점기에 이화여전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1941년 이후 제국일본이 패전하기 전까지 친일문인단체에서 활동했다. 우선 1941년 8월에는 조선문인협회 간부(임원의 하나)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 협회가 1943년 4월에 조선문인보국회로 탈바꿈했을 때 이 모임에서 활동했는데, 예를 들어 그는 1944년 1월에는 임명하는 학도를 환송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그리고 서두수는 조선문인보국회가 당시 시국의 중대성 등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보도특별정신대에서도 활동하여 강원도에 내려가 시국강연을 하기도 했다.

39)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한다. 중국인 연구자인 추쌍쌍(鄒雙雙)은 『中国における『万葉集』の伝播とその翻潤状況について』에서 중국도 근대 이전에는 『만엽집』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1940년대에 폭발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당시 『만엽집』을 소개한 사람이나 그것이 실린 잡지 등의 성격을 종합해볼

내재화한 서두수는 그런 시각을 고대일본에 투영하여 과거를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런 그의 ‘병사의 노래관’은 ‘내지’의 그것과 연동되어 있었다.

결국 서두수의 ‘병사의 노래관’은 제국 일본의 민족주의적 시각을 식민지 조선인으로서 내재화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근대국민국가가 고전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각, 곧 고전에서 자랑스러운 민족의 정체성과 유구한 역사를 발견하고자 하는 시각의 연장선상에도 서 있었다.

### <參考文獻>

- 김영심(2002) 『식민지 조선에 있어서의 源氏物語-경성제국대학의 교육실태와 수용양상』 『일본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p.40
- 나카니시 스스무(2012) 『대장정의 출발-이연숙 박사의 『한국어역 만엽집』간행을 축하하며』 『한국어역 만엽집1-만엽집 권1·2』 박이정 p.1
- 박경희(2006) 『일본의 번역출판사업 연구-일본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번역원』 pp.208-258
-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p.367
- 박상현(2011) 『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번역에 관한 연구-『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치졸한 이식』을 중심으로』 『일본문화연구』 제39집 동아시아일본학회 pp.223-236
- \_\_\_\_\_ (2012) 『단절된 일본문학연구의 계보-『만엽집』을 중심으로』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pp.117-132
- 서두수(1941) 『오전 3시의 잠꼬대(午前三時のたは言)』 『국민문학』 인문사 p.120
- \_\_\_\_\_ (1942)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 『매일신보』 11월 2-7일자
- 서은주(2008) 『일본문학의 연표화와 식민지 문학의 내면』 『상허학보』 제22집 상허학회 p.268
- 임종국(2005)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단, 초판은 1966) pp.445-446
- 『조선비즈(chosunbiz)』 2012년 7월 20일자
- 鴻巣盛廣(1935) 『萬葉集全釋』 広文堂書店 p.39
- 品田悦一(2005) 『東歌・防人歌論』 『セミナー万葉の歌人と作品』 第11卷 和泉書院 pp.20-21
- 豊田八十代(1935) 『万葉集總釋』 樂浪書院 p.39
- 身崎壽(1973) 『防人歌試論』 『万葉』 第28号 万葉学会 p.22
- 鄒雙雙(2011) 『中国における『万葉集』の伝播とその翻訳状況について』 『일본문화학

때 『만엽집』의 소개가 친일의 일환이 아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鄒雙雙(2011) 『中国における『万葉集』の伝播とその翻訳状況について』 『일본문화학보』 한국일본문화학회 pp.168-175

보』한국일본문화학회 pp.168-175

접 수 일: 12월 30일

심사완료: 1월 25일

게재결정: 1월 29일

<Abstract>

**Criticism on Suh Doo-soo's view on 'Sakimorinouta'**

- By analyzing his intention of translating 'Sakimorinouta' -

Suh Doo-soo is the first Korean who entered Keijo Imperial University, took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course, and learned Japanese literature in modern academism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heat of the Pacific War, from November 2, 1942 to November 11, 1942, he translated 'Sakimorinouta' into Korean among Uta in 『Mannyousyu』 in the name of 『Sakimorinouta : shameful implantation』 in 『the Maeilshinbo』, the official press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His intention of translating the song was quite obvious. He read 'the true heart of Japanese' and 'lofty national character' from 'Sakimorinouta' and wanted to propagate it as if that is the national identity imbedded in Japanese history. In other words, he projected imperial Japanese nationalism onto the past in order to reconstruct its past. Moreover, his view on 'Sakimorinouta' is interlinked with 'Naichi'.

In conclusion, Suh Doo-soo's view on 'Sakimorinouta' reflects that he, as a Korean who lived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internalized imperial Japanese nationalistic view in himself. In addition, his perspective was extension of modern nationstate's typical view on the classic which tries to seek glorious national identity and continuous history from the classic.